

초등학생 상담사례를 통한 학교사회사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 영 진*

오늘날 초등학생들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말한 것도 없지만 가정환경도 많이 변하여 서운의 평균적인 지역환경에 위치한 학교의 결손가정아동은 5%정도이다.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들이 보이는 행동특성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도벽, 잦은 결석, 지각, 반항, 무기력, 공격적인 언행 등이 그것이다. 그들의 담임교사는 아동의 가정형편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지만 수업준비와 진행, 잡무처리 등으로 충분히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다.

학교사회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가지로서 학교를 통하여 아동에게 복지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등학교에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가 정착이 되어 활성화되고 많은 실효도 거두고 있다. 초등학교도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기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한다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

I. 들어가는 글

교육은 학습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부적절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개인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 그러한 형편에 처한 학생들은 학습에 전념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배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학교에 오는 것이 형식적일뿐 지겨운 일상이 되기 쉽다. 이것이 거듭되다보면 이탈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한 다분하다.

교사들은 개개 학생들의 가정사정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 개별지도와 상담을 통해 접근하지만 교재연구와 학습지도, 잡무처리 등으로 충분히 개인상담을 할 만한 절대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97년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실직을 당하고 부부가 이혼하여 해체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솔아동과 학대아동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온갖 사회병

* 서울수유초등학교 교사

리의 잠재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필요성은 학교와 이웃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과연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웃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¹⁾.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에 의해서도 관찰될 수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결석이나 지각이 잦으며, 수업중에도 학습준비물을 갖추지 않거나 학습내용에 관심이 없이 주의산만하여 학습진행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이리다보니 교우관계도 원만치 않아 아예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성격이 되어서 자주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동들을 면담하다보면 그들의 가정사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학교사회사업이 있다. Radin(1975; 한인영 외 [1999]에서 재인용)은 다음과 같이 학교사회사업에 대해서 말하였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상호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사업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이 두 전문분야는 공히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을 확산하는 인간존엄의 가치관에 기초를 두로 있다. 따라서 사회사업과 교육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사회사업과 교육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의 인용글에서 보듯이, 오늘날 교육과 사회복지의 인간잠재력의 최대 신장을 돕는다는 면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복지측면과 잠재력의 최대 신장이란 교육적 측면이 조화될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방문교사제도를 두어 전문사회복지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사회사업의 현장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전무(全無)하고²⁾ 사회복지기관인 한국이웃사랑회가 학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학교사회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의 협조를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1집: 141). 중등학교의

1) 1998. 4. 27(월) SBS TV '사건과 사람들'에선 학대를 받아 숨진 여자아이와 죽기 직전에 발견된 그의 남동생이 소개되었는데 이웃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던 사례였다.

2) 1994년부터 서울수석초등학교에 '꿈나무 교실'이란 명칭으로 학교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한 학교사회사업이 3년동안 지속되었으나 그 이후는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교육계의 인식부족과 학교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일반화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려웠다(한인영외: 1999).

경우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도가 공식적으로 정착되어 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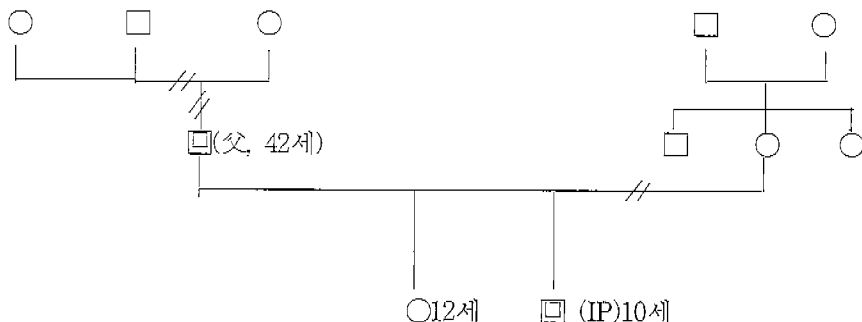
본 고(稿)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현장중심 상담사례를 통해 아동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드러냄으로써, 학교사회사업이 초등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계자들과 교육현장의 상부관리자들이 상담활동을 통해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

II. 펼치는 글

1. 연구기간 : 1999. 3. 1~1999. 10. 30

2. 연구대상(특정 단일사례)

- 1) 연구자의 학급아동 중 이혼가정의 남아(5학년)
- 2) 신체적 특성 : 경도비만정도의 우량아이며 키도 큰 편임
- 3) 교우관계 : 폭넓게 사귀지는 않으나 명랑하여 원만한 관계를 맺음(학년초 관찰)
- 4) 가계도 : 1학기때 아버지가 와서 담임교사와 면담을 할 때 알게 된 사실에 의함



3. 연구방법 :

교육연구에 있어서 질적연구는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은

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그리고 인터뷰에 의존한다. 학교현장에서 질적연구가 수행되기 좋은 점으로 김영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997).

첫째, 양적연구와는 상이한 논리로 전개되는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이 하나의 피험자가 아닌 연구참여자가 된다. 참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신념, 생활세계, 가치관, 세계관 등이 실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함께 생활하는 학교현장 즉 교실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둘째, 특정사례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중요성은 교육연구의 일반적 목적이 인간에 대한 이해 및 현장의 개선과 변화를 통한 인간에의 봉사라고 보았을 때, 사례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근접한 이해를 제공해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현상기술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숫자가 배제된 현상의 심층적 기술과 표현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현상이나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관계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그 복잡성이 주로 인간의 의식과 주관적 경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현상의 심층적 기술은 고도의 추상화된 표현방식인 숫자와 통계가 갖는 제한점을 넘어서 현상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근접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 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상의 장점을 살려 학년초 새로 맡은 학급 41명(남 23명, 여 18명)에 대하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개인적인 가정형편에 관심을 가졌다. 개개 학생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생활기록부상에 나타난 가족사항기록이었다. 거기엔 남자아이 한 명만 편부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비교적 안정된 학급이구나’라는 본 연구자의 생각은 3월이 지나 4월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행동들로 인해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담임교사로서 정기적인 상담이 진행되었다. 다음에 네 사례를 간단히 제시하고 그 중에 한 사례는 특정장면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학교현장에는 담임의 관찰을 통해 볼 때 과잉행동이나 주의력결핍 등으로 학습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염려될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모가 구존(俱存)하는 경우는 부모를 통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결손가정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참여관찰과 더불어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의식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우호적인 자료수집방법이다(한영진, 1998). 아동의 깊은 내면의 세계는 역시 개인상담에서 드러나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대화내용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기에 본 연구자는 방과후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상담시간을 가져왔다.

표 1 : 네 명의 아동에 대한 개인사정과 상담 및 조치사항

비고	대상	성별	가정사정	문제행동	상담 및 지도	결과
사례 1	홍○○	남	백일 무렵 부모이혼 큰덕에서 살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아빠가 한 달에 몇 번씩 올라옴	과잉행동과 도벽	과잉행동발견후 관심갖고 지도, 도벽행동으로 인해 큰엄마면 단전화를 계기로 자세한 가정사정알게됨	도벽행동발견후 오히려 담임이 가정사정을 알게된 것이 다행한 결과가 됨. 꾸준한 상담으로 안정된 행동을 하게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려고 애쓰고 있음
사례 2	김○○	남	97년 겨울에 이혼 후 실직까지 당한 아빠가 두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음(중1여, 5학년 남) 생보자	아빠를 무시하는 언사, 자살협박, 가출, 가내폭력행사	아빠가 직접담임과 면담요청을 한 것을 계기로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음. 현재 상담진행중	무료급식혜택 아빠의 고생을 이해하고 덜어드리려는 아들로서의 자세를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3	김○○	남	세 살때 부모이혼, 조모, 부, 중3누나 생보자	기초학력부진으로 진단평가 수학1점(25점 만점)학습준비물미비	학습개별지도, 자리배정 고려(앞자리), 학습준비물 마련해주기	무료급식혜택 2학기 독후감쓰기 대회에서 수상(학교입학후 처음받는 상)-진보를 보인데 대한 격려로써 보상
사례 4	이○○	남	부모별거, 父가 전학시킴	전학온지 6일만에 가출, 무단결석 PC방에서 잠자기	가출을 하고난 후에야 가정사정을 알게되었음	9월 1일 전출-모친이 직접 전화를 해옴, 모친을 찾기 위해 가출을 했다고 말함

위의 표에서 ‘사례 2’의 아동은 그의 부(父)가 직접 담임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기에 가정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부모면담 이후로 아동과도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아동이다. 아동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3학년 10월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나간 후 아빠와 살게되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내면 깊숙이 남아있다는 것과, 아빠 또한 상실감과 배신감에 이어 실직이란 고통까지 겹친 상태에서 지칠대로 지쳐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식인 ○○마저 점차 과격해지는 언행을 견디다 못해 담임에게 의논차 1학기 6월에 학교를 찾아온 것이었다.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의 학교생활은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이 안보였었

다.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성격도 밝고 명랑해보여서 처음엔 아빠가 ○○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한 내용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였다.

그러나 차츰 문제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석을 하고 나면 꼭 아빠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전날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함과 동시에 불안스런 목소리로 ‘○○ 좀 잘 살피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상담과정 및 상담장면

1) 장면 1

다음에 ○○과 상담한 내용의 일부를 옮겨본다. 3회기 때의 내용인데 면접심청서에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라는 난에 자살 항목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중의 일부이다. 이 회기는 축어록을 위해 녹음을 해둔 것으로 축어록으로 남긴 것중 극히 일부분만을 옮겨본다.

(○○가 속을 썩여서 아빠가 우셨다는 얘길 하고 있었던 이후)

.....

내 : 네.

상 : 그럴 때 아- 아빠가 왜 우시나? ○○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울지 않으실까?

 그런거 생각했지 그 순간에?

내 : 네.

상 : 네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안 우실 것 같애?

내 : 속상하게 굴지 않고요,

상 : 네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속상하신데?

내 : 누나하고 싸울때요, 거의-

상 : 누나하고 싸우지 않는것도?

내 : 그게 제일 큰 문제같고요, 음, 아빠가 화나는건요, 화나면 모든지 안하고요,의 자같은 것도요 방 거기 폭신폭신했데 깔고 앉는 방식같은데 있잖아요(쿠션을 가리키는 듯함)그것도 막 칼로 찢고요,

상 : 칼로 찢었어?

내 : 네

상 : 누가?

내 : 제가요.

상 : 저런!

내 : 또 TV를요 아빠가요 예전에 처음으로 원금받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샀던 TV있거든요.

상 : 음-

내 : 그걸요 방망이 갖다가요 때려가지고 좀 찌그러지고요, 냉장고같은 것도요, 코드 빼가지고요 음식 거의 상하게 할 때두요, 아빠가 속상한 것 같아요.

상 : 음 그랬어?

내 : 네

상 : 그래, 정말 ○○이 하는 애길 들으니까 아빠가 화가 안나실 수 없겠다. 그치?

내 : 네

상 :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아빠 우시는 걸 보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

내 : 네.

상 : 그래서... 그럼 아빠가 화나시는 일이 없도록 그치?-

내 : 네.

상 : ○○이가 행동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가 지금 행동한 애기 들으니까 누나와 싸우지 않는 거-또, 집안에 여러 가지 기구같은 거 때려부시지 않는거-그치?

내 : 네.

상 : 그렇게 하겠다는데..그거 앞으로 할 수 있겠어?

내 : 그런거요?

상 : 음

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것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로는 두 남매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지나치게 싸우고 아빠가 야단이라도 치면 ‘재수없어! 꺼져!’하며 아빠를 노려보면서 대드는 행동을 하여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이 들어 시설(施設)에 맡길까 생각중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실직을 하고 공공근로를 다니고 있으나, 아내도 없이 두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전세보증금 중의 일부를 되돌려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은 터라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화났을 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들까 공감의 갔다.

본 연구자는 아이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공격적인 연사로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지, 아버지는 가뜩이나 아내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데다 아이들마저 속을 썩이니 오죽했으면 아이들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했을까 하는 딱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다. 가장으로서의 무능감을 느껴 힘없이 본 연구자 앞에 앉아 하소연을 하는 ○○의 아버지에게 그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말을 해 주었을 뿐이지만, 이 분야에 좀더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현실을 극복하기 쉬울 것이란 생각을 할 때 안타까울 뿐이었다. 만일 초등학교 현장에도 전문 사회복지사가 방문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즉시 연결을 하여 그 아이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

상 : 그래- 지금 ○○이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주로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난다 그랬지?

내 : 네. 죽고싶다는-칼에 찔려 죽고 싶다는 생각요.

상 : 칼에 찔려서?

내 : (침묵)

상 : 네가?

내 : 네. 예전에도요, 칼에 찔릴려구요, 칼을 들고 이렇게(자기 앞부분을 가리키며) 할려 그럴 때도... 할 때도 많았어요.

상 : 무슨 칼을.

내 : 부엌예요, 큰 칼 있어가지고요,

상 : 아무도 없을 때?

내 : 누나랑 있을때도요, 그랬구요, 아무도 없을때는요, 옆집이나요, 이웃들이 막 와가지고요,담 넘어가지고요, ‘○ ○아, ○ ○아, 하지마!’ 막 이러구요, 아줌마들이요.

상 : 아줌마들이 다 봤어?

내 : 네.

상 : 음-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 부모의 보호 아래 응석도 부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바르고 곱게 자라나야 될 아이가 엄마의 따스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 이렇게 포악한 생각과 끔찍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담임으로서도 너무나 놀라와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살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빠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로 미루어 볼때도 누나랑 싸우고 난 후에는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성질을 부리고 아빠 넥타이를 들고 아빠 바로 앞에 와서 ‘어떻게 죽어줄까? 굶어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장면 2

다음은 10월 어느날 미술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장소-야외학습장

사건-미술시간에 같은 조(組)에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말에 동조를 안해주고 모두 자기를 빈정거리는 투의 말을 했다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겠다고 교문쪽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친한 친구를 보내어 다시 데려오려고 했으나 그냥 뿌리치고 뛰어나감(사실은 의견차이를 보인 것인데 우연히 1:5로 ○○이 혼자만

다른 의견을 낸 것임)

(관찰된 행동특성)

- *간신히 데려왔으나 가방을 챙겨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림. 식식거리며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밤
-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너의 화가 풀리겠느냐니까 ‘누군가 때리고 싶다’고 말해 사람은 때리는 것이 아니니,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의자 위에 방석을 주먹으로 실컷 치라고 하고 들어보냄
- *잠시후 교실에 가보았더니 교사 의자 위의 방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과시간에 만든 자기 방석의 곁형겉과 속스폰지를 가위로 잘게 자르며 식식거리고 있었음. 다음시간은 음악교과 시간이라서 담당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휴게실로 나와서 이야기를 시켰음

(식식거림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 상 : ○○아, 아까 화가 많이 났었지?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게 되었니?
- 내 : 3학년때요- 전학을 갔는데 애들이 신고식을 한다고 과학실로 데리고 가서 불로 지지고 그랬어요.
- 상 : 저런! 그렇게 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니?
- 내 : 선생님한테 말해두요, 안믿구요 개네 말만 믿었어요. 그리고 저더러 거짓말시키다고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눈물이 그렇그렇해지더니 툭툭 흘림).
- 상 : 무척 속상하고 억울했겠구나. 그리고 또.
- 내 : 외할머니네 지하방 같은 데서 누나랑 같이 있었는데요-외할머니도 누나랑 나한테 용돈을 조금 주고요. 한달에 천원을 주어서 준비물을 사고 다 떨어지니까요, 누나를 의심하고 혼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운데 우리를 트럭에 태워서 밤중에 아빠한테 데려다 놓고 가 버렸어요. 그 때부터 아빠랑 살게 된 거예요.

위의 이야기는 1학기 때 ○○의 아빠가 교실에 찾아와서 들려주었던 이야기와 일치한다.

아빠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설마 어린 아이가 그렇게 심한 말과 행동을 아빠에게 할까?’하는 생각으로 의아해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말을 직접 들으니 ○○가 왜 그렇게 성질이 사나워지고 포악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갔다. 부모이혼 무렵에 받은 외상Trauma으로 인해 성격이 난폭해진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성장한다면 청소년비행은 물론 이 다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 학대하는 부모가 될 것이 뻔한 것을 *Abusive cycle* 생각할 때 아이로 하여금 분노감 표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한영진(1998 ; 77)은 그의 논문을 통해 상담활동이나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참여관찰과 제보자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야 될 것에 대해 제안한 바 있는데 학교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면밀히 연구되어질 때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방안들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위의 상담사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의 아버지와 ○○의 불안정한 성격, 그리고 사춘기가 되는 누나가 학교를 자주 빠지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의 위기가 언제 어떤 문제로 터질지 몰라서 늘 마음이 안놓인다. 아침에 출근하여 ○○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

조희일과 이윤로(1999 ; 105)는 어머니와의 초기 애착경험이 박탈당했을 때 성격발달이 지연되고 삶의 후반기에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사회환경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이 박탈의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가정변인이 정상적이지 못한 아동들이 학교사회사업을 통해서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기회를 자주 가진다면 애착경험의 박탈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5. 초등학교 교사의 현실

한 학급 40여명을 맡은 담임으로서 의도적으로 개별상담을 하다보니 보람도 느끼지만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첫째 사명인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을 미뤄 둘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공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안정되어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요일은 전학년이 모두 4교시를 하는 날이라 오후 시간은 개인상담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두 세 아동을 약 40분-1시간씩 상담하고 정리를 하다보면 퇴근시간까지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교사들 대부분이 전문적인 상담지식이 없다보니 아동과의 대화는 지시 일변도이기 쉽고 다만 아동의 구체적인 가정사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교사 스스로 위안을 삼는 정도다.

본 연구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방과후 아동들이 모두 돌아간 빈교실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어서³⁾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에

3) 1999년 여름학기부터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과정이 초등, 중등별로 개설되어 실

로저스(Rogers)의 인간관에 입각하여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sitive regardness’의 자세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 한가지로 위안을 삼아야만 했다.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보호받음으로써 발달될 수 있는 자아존중의 욕구가 결핍된 아동에게 담임교사가 조금이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로저스가 말한대로 한 개인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一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전문가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비행의 잠재성이 있다. 여러 학자들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서부터 찾고 있다(1994: 삼성복지재단). 성장하면서 좋은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서비스를 받고 학교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는 학생들은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아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못하여 주위로부터 거부당하는 학생은 동료집단에서 일탈하여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보복심리의 해결과 자기만족감을 충족시키며 반사회적인 인물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사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자가 소속된 5학년의 각 반별 결손가정아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학급별 결손가정아와 특수아⁴⁾ 현황

(1999. 10. 25. 현재)

반	편부	편모	양친 다 없음	특수아	결손가정아의 행동상의 특징(관찰결과)
1	2	2	1	1(자폐)	정서불안, 무관심, 태만, 폭발(잠재된 분노의 감정)
2	.	2	.	1(정신지체)	밝고 친구와 잘 어울림
3	2	1	.	.	정서불안, 무관심(父의 관심부족으로 학습준비소홀) 주위환경 조용하면 불안해함
4	1	.	.	1(정신지체)	개인적인 성향(자존심이 매우 강함)
5	.	.	1	1(정신지체)	열등의식, 소심증
6	3	1	.	.	주의산만(과잉행동, 정서불안), 외톨이, 공격적, 도벽
7	.	.	.	.	
8	1	1	.	.	저지능, 나태함, 주의집중력부족
9	1	.	.	.	
10	1	.	1	.	책임감부족
계	11	7	3	4	결손가정아만 총 21명(학년전체의 5%)

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한국교원대에서 전문상담교사연수를 받고 있는 중임.

4) 특수아란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나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받는 아동을 말하는데 내게 초등학교엔 저학년, 고학년 두 개의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이거나 특수교육연수를 받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 학년의 약 5% 정도인 21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손가정아(缺損家庭兒)들이며 그들의 행동특성 또한 공동체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기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2반의 편모아동은 ‘밝고 친구들과 잘 어울림’이라고 쓰여있는 것이다(담임교사의 표현 그대로를 기록한 것임). 모든 편모아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엄마의 돌봄을 받는 아동들은 행동에 있어서 편부아동들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서울의 강북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있어 매우 평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의 사정은 이보다 더하리라고 생각한다. 가정이 해체되고 쉽게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로 인해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받고 자란 아동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대물림이 되는 성품들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돌아볼 때 초등학교를 통한 학교사회사업의 제도적인 서비스가 시급함을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III. 맺는 글

청소년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할 때 국가의 장래가 밝을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부터 24세까지 정하고 있다.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고가 난 후에야 반성과 아울러 뒷손을 쓰고 있다.

사람의 경우 어린 시절에 한번 받은 심리적인 상처가 평생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하는 만큼 아동지도자는 문제를 가진 이들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어린시절에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손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 학급 담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면 그 아동들이 자라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은 언어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마음의 아픔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문제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어떤 아이는 무기력하고 냉담함으로 반응하고, 어떤 아이는 도벽을 통해 관심을 끌려하고,

어떤 아이는 과잉행동으로 남을 괴롭히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이러한 이상행동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지체가 있어야 학생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야 준비한 학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상담에 전념하다보면 교제연구를 충실히 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피상적인 관심만 가져주고 학습지도에만 전념하다보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통한 호소를 간과하게 되어 표면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질책만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다름아닌 현장의 교사들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하루종일 관찰하면서 건강상태와 정서상태 그리고 이상행동들을 살피면서 어떤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초등학교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도 학교책임자나 담임 교사의 승낙을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⁵⁾. 이것은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하지만 학교의 관리자들도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전국의 6개 중·고등학교로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아동복지편람, 1997:514), 이러한 사업이 중·고등학교에 한정된 것이 안타깝다. 초등학교에도 학교사회사업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과정에도 반드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학교사회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과 학문이 상호협조하지 않으면 복잡한 인간사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적인 서비스활동에 대한 사례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일반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고 필요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1999년도부터 각 교육대학원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중등뿐 아니라 초등학교현장에서도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상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5) 본 연구자는 1998년도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某초등학교에 한국이웃사랑회의 자원봉사자로 파견되어 4, 6학년 학생 중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에 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한 바 있다.

상담실 설치 등의 의무조항을 두어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교육과 사회복지는 이러한 입장에서 상호공조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의 지향점을 찾아야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천(1998). 학교현장에서의 질적연구에 관한 고찰. 교육학연구 35권 35호.
- 삼성복지재단(1994). 10대 청소년의 생활세계.
- 서영숙·이재연·이명조(1999). 아동상담과 치료. 서울 : 양서원.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6). 학생상담사례집 제19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사회복지총서 3.
- 이소희(1999).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 도서출판 CUP
- 이희봉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연구.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희일·이윤로(1999). 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 학지사.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현대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좌절(pp. 60-65).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 한국이웃사랑회(1998). 아동학대상담 사업연구집. 서울 :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 한영진(1998). 시설출신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미시문화기술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1999).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한 사례연구. 한국이웃사랑회사업연구 2집.
- 한인영·홍순예·김혜란·김기환(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 학문사.
- 제임스H. 존슨, 윌리C. 래스버리, 로렌스J.시겔 공저(1994). 김태련·이경숙·이선우·간우선 옮김. 아동 치료접근. 서울 : 이화여자출판부.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stallment of School Social Workers in the Elementary School

Han, Young-Jin^{*}

Toda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quite different from ones in the past. Family background as well as the way they think and behave changed a lot. In Seoul, for example, the rate of students without proper family services is 5 percent or so. Their behavior characteristics-stealing, lateness, frequent absence, assertive activity have added to serious social problems, although their home room teachers have much concern about their students' family backgrounds and give counsel them. In reality their home room teachers are very busy in preparing for classes involving teaching and doing some other things.

School Social Works is on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cause it is supposed to give children near-idealistic environment. In middle school 'The Student Counseling Volunteer System' has established and had in much effects. Therefore I suggest that this system be implemented in elementary school, as it has been in middle school. On the belief that it can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and even help them become sound souls.

^{*} Seoul Soo-You elementary school